

외산PDA - 국산무선킷 공조

국내 PDA 판매량 70%가 무선제품인 듯

외산 PDA 공급업체들이 PDA용 무선확장 킷 업체와 활발한 공조에 나서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프전자·한국휴지즈 등 외산 PDA 공급업체들은 출시 기획 단계부터 휴대용 무선 인터넷 기능을 제공하는 PDA용 무선확장 킷 업체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맺고 국내 PDA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 하반기 들어 국내 PDA 판매량 중 무선 제품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장의 무게 중심이 무선 PDA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외산 PDA 공급업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아직 일반 PDA가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PDA시장의 경우 무선 PDA가 대세"라며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PDA와 결합해 무선기능을 부가시켜

주는 무선확장 킷 업체와 제휴해 무선 솔루션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일본 사프의 '자우루스' PDA를 국내에 공급하는 사프전자(www.sharp-korea.co.kr 대표 이기철)는 한빛아이더(www.hv.co.kr 대표 양도승)와 손잡고 무선 솔루션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빛아이더는 자우루스의 CF(콘텐츠플레이어) 슬롯에 장착해 사용하는 무선확장 킷인 'CF킷'을 다음달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무선 솔루션을 확보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범인 수요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우루스 PDA 마케팅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휴지즈(www.fujitsu.co.kr 대표 안경수)는 바이인터랙티브(www.beinteractive.co.kr 대표 박재훈)와의 제휴를 통해 최근 국내 출시한 후지쯔의 포켓PC 계열 PDA인 '포켓북

스 600'용 무선확장 킷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바이인터랙티브는 포켓북스 600용 무선확장 킷(가칭 'i-ON')의 개발을 끝마쳤으며,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SK텔레콤의 품질보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 제품은 한국휴지즈의 법인영업을 위해 개발했으나, 부피가 작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조만간 일반시장 판매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HP의 '아이래' PDA용 무선확장 킷을 공급하는 중앙디지털(대표 박정화)도 대만 아수스텍의 PDA를 수입, 공급하면서 계열사인 모바일웬츠를 통해 이 제품의 전용 무선확장 킷을 개발 중에 있다. 이달부터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아수스의 '메이발' PDA는 64MB급 메모리와 인텔의 PX A250 중앙처리장치(CPU)가 탑재된 고성능 기종으로, 이 회사는 조만간 무선확장 킷을 출시하고 기업용 대상으로 판매 확대에 나선 예정이다.

한지운기자 gogama@dt.co.kr

50만원대 세컨드PC로 교육망 공략

중견PC업체 "노후PC 재활용보다 더 효과적"

중견 PC업체들이 50만원대 세컨드PC로 교육망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들 세컨드PC는 인텔 셀러론 1.70GHz CP, 128MB DDR SDRAM 모듈, 20~40GB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본체 가격이 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중견 PC업체들은 노후PC 재활용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50만원대 세컨드PC가 성능면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중견 PC업체 관계자는 "멀티미디어 교실 한 개를 세컨드PC로

구입 경우, 노후PC 재활용 솔루션 도입보다 2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지만 교육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인텔 등 PC 부품업체들이 가격을 더욱 낮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컨드PC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노후PC 재활용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는 학교에서 구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데이터(대표 김인철)은 삼보정보통신(대표 강응철)·아이탑(대표 이은성)과 공동으로 인텔 셀러론 1.70GHz, 128MB DDR SDRAM 모

듈, 20GB HDD, 비아 통합보드도 이뤄진 50만원대 세컨드PC로 이날 중순부터 학교를 대상으로 특판용 실시하고 있다.

세이퍼컴퓨터(대표 박종진)는 이날 조부터 학교시장을 겨냥해 인텔 셀러론 1.30GHz, 256MB DDR SDRAM 모듈, 인텔 810E 기반 통합주기관, 40GB HDD로 이뤄진 특판 모델을 59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주연테크컴퓨터(대표 송시문)도 인텔 셀러론 1.70GHz, 40GB HDD, 128MB DDR SDRAM 모듈, SIS 650G 기반 통합주기관, 52배속 CD 드라이브, MS 윈도XP 홈에디션 등으로 이뤄진 특판 모델인 '네이션스'를 50만원에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 원할 경우 17인



치 평면 모니터를 포함해 70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이밖에 뉴테크컴퓨터(대표 박철우)는 셀러론 1.70GHz, 256MB DDR SDRAM 모듈, 40GB HDD, 52배속 CD롬 드라이브 등으로 구성된 특판 모델을 50만원에, 모리스컴퓨터(대표 안대수)도 셀러론 1.70GHz 기반의 세컨드PC인 '초이스'를 57만원에 각각 공급하고 있다.

문대영기자 pcman@dt.co.kr

2500억 전기밥솥시장 대격돌

중견기업 기능차별화 공세... 대기업 'H기술' 맞대응

국내 밥솥시장을 놓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시장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밥솥업체들은 다양한 요리기능과 LCD창, 음성안내시스템 등 첨단 부가기능을 집약한 제품을 내놓는가 하면 자체 개발기술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밥솥시장은 성장전자·대웅전자·두원테크 등 중견기업과 LG·삼성전자 등 대기업간의 주도권 다툼이

지열한 가운데 올해 2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전자(www.cuckoo.co.kr 대표 구자신)는 독자적인 밥솥 브랜드 '쿠쿠' 광고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또 유통을 담당하는 판매업인 쿠쿠도 회사명을 '쿠쿠홈시스'로 바꾸고 전기밥솥시장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대웅전기산업(www.dae-wonng.co.kr 대표 김용진)은 '모닝콤'이란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공략에 나서는

한편 4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전봉이는 밥솥전문업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회사는 모닝콤 밥솥에 인공지능 마이클을 장착해 장작불 가마솥 밥맛을 재현해 안방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두원테크(www.doowontech.com 대표 김종기)도 전봉의 밥솥업체 마진기의 브랜드 '마마표'를 인수해 지난해 전기밥솥 밥솥시장에 진출. 자체 브랜드 전기밥솥 '지바네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중견 밥솥업체들이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앞세운 LG전기와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삼성과 LG는 일반 전기보온밥솥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공급받으면서 새로운 밥솥기술로 무장하고 있는 IH(Inverter Heating-통가열)방식 밥솥으로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IH방식은 밥솥 하부를 감싸고 있는 전자 코일에 의해 고열과 고압이 발생, 솥전체가 뜨거워지면서 밥을 하는 것으로 기존의 열판 방식에 비해 단위면적당 열전도율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조두천기자 ducheon@dt.co.kr

에어컨 예약구매 '이제 못한다'

가전업체들이 실시해 온 에어컨 예약구매가 올해부터 사라진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는 그동안 매년 12월부터 실시해 온 에어컨 예약구매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마케팅 전략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실시해 온 에어컨 예약구매가 김치냉장고 사은품 제공 등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데다 내년 경기 불안에 따른 대비책의 일환으로 풀이

된다.

특히 에어컨 예약구매가 성수기 판매와 비교, 다양한 알인형태에 따른 부담감과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에어컨 예약구매를 통해 LG전자는 전체매출의 2.0%인 15만대, 삼성전자는 10만대 정도를 판매했다.

백용대기자 ydbaek@dt.co.kr



디지털TV가 무궁화 위성3호를 통해 방송을 각종 동영상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셋톱박스를 시너버스로 장착해 시연해 보이고 있다.

버스에서도 TV 볼 수 있다

위성 셋톱박스 개발 디지털원, 수출 추진

디지털원(www.digitalone.co.kr 대표 정철영)은 달리는 버스에서 위성 통해 동영상 볼 수 있는 버스 전용 동영상 위성 셋톱박스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32개가 플러시메모리에 리눅스를 기본 OS로 탑재해 버스 진동에도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여러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와 동영상 압축 MPEG4 인코더를 탑재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제품은 무궁화위성 3호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받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버스 전용 위성 셋톱박스로 동영상 프로그램, 생활정보, 광고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차량의 전선 문제와 전선 차단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보드도 개발, 데이터 훼손과 단말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정철영 사장은 "현재까지 리무진버스와 서울·경기 지역 고급 좌석버스에 200여대를 설치했으며, 향후 한국통신, 쉐라미디아, 에드벨 등 부문별 협력기업과 함께 수도권 및 국내외의 전국 버스뿐 아니라 해외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두천기자

뉴일레니엄 시대의 전문일간지 - 디지털타임스
 *광고문의:(02)3701-5987/구독문의:(02)3701-5456

HP, 디지털복합기 공략 강화

주력 레이저프린터 포화이르자 탈출구 모색

한국HP(www.hp.co.kr 대표 최준근)가 레이저프린터 기반의 디지털 복합기를 앞세워 한국휴지즈·신도리코·롯데캐시가 주도하는 국내 사무기기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한국HP는 내달 초 레이저젯 9000 MFP·4100MFP 등 레이저프린터 기반의 디지털 복합기 2종을 국내에 출시하고 기업용 디지털 복합기 시장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레이저젯 9000MFP는 분당 50장을 복사 및 출력할 수 있으며 팩스 및 스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기업용 복사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HP는 예상하고 있다.

또 레이저젯 4100MFP는 분당 24장의 문서를 복사·출력할 수 있는 다기능 제품으로 중소기업과 PC방 등 복합 활용공간에 적합하다.

한국HP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복사기업체의 디지털 복합기에 비해 성능이 뒤지지 않아 기존 복사기를 대체할 것"이라며 "복사기

업체들의 영업방식에 익숙해 있는 기업고객의 입맛에 맞춰 임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기존 레이저프린터 대리점을 활용하는 한편 복사기 주요 수요자인 복사업과 인쇄점 등을 담당하는 전담 대리점을 선정했다.

또 복사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에프터서비스(AS)를 전담할 전문업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객방문 마케팅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이 월간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디지털 복합기를 임대해주는 임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HP가 디지털 복합기 시장공략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국내 레이저프린터 시장이 신규보다는 교체 수요가 많은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새로운 시장개척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한경기자 nlla@dt.co.kr

모바일 스마트카드리더기 개발 제이에스디지텍

스마트카드 단말기 전문업체인 제이에스디지텍(www.jse.co.kr 대표 전창만)은 PDA에 장착해 사용하는 모바일 스마트카드 리더기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HPC(핸드헬드PC) 및 포켓PC 계열 PDA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스마트카드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전자화폐에 기록된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전자지갑·전자상

거래·모바일 뱅킹·홍표승·원격진료·물류시스템 등을 PDA에서 구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PDA의 보안 및 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PDA의 도난 및 분실 등의 위험요소를 상당부분 제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PDA를 이용한 각종 모바일 서비스 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이 제품은 사용자 인증 및 결제 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해 높은 수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지운기자